

## 아파트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관한 연구 Additional Functions of the Kitchen in the Apartment

박희진\*                      김묘정\*\*  
Pak, Hee-Jin                Kim, Myo-Jung

### Abstract

Kitchen has been an essential spac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house regardless of culture and regional differences. However, due to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kitchen is no longer used only for preparing food and dining which seem to be a traditional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dditional functions of the kitchen and figure out the related variables. The survey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321 housewives living in the apartment sized over 99㎡(30 pyung) in Ulsa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PC+ with frequency, percent, and chi-squared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Kitchen was now used for eating snacks(45.6%), keeping household account(42.5%), and chatting(41.6%). (2) Homemakers wanted to do laundry such as ironing, drying clothes, and folding clothes in the kitchen. However, there were several activities(i.e., grooming, rest and taking a nap, exercise) they do not want to do in the kitchen. (3) The variables which related to the additional functions of the kitchen were size of the apartment, age, and level of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re must be design considerations for chatting and keeping household account such as providing tables and comfortable chairs. In addition, new counter layout type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needs of additional functions and related variables.

Keywords : Kitchen, Additional functions, Apartment

### I. 서 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주거의 역할이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주거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나날이 변화하여 왔으며,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주거의 역할 또한 변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주거의 역할 중의 하나는 능률적인 가사작업공간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엌은 문화나 지역에 상관없이 여전히 가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사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어 오

늘날 부엌공간은 주부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취사 행위를 하려는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준비와 식사라는 전통적인 기능 외에 오늘날 부엌은 어른과 어린이사이에 대화나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한 장소로도 쓰이고 있다. 윤복자(2002b)는 부엌공간은 부모와 자녀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사회공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부가 생활계획, 은행일, 쇼핑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대화의 장소로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결과 부엌에서 식사, 담소 및 가족 단란, TV 시청, 음악감상, 독서, 세탁관련작업, 여가 및 취미활동, 자녀교육, 휴식, 주거관리 등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엌에서의 부가적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김진애 외, 1994; 박영순 외, 1998; 윤복자 외, 1990; 윤정숙 외,

\*정회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부교수

\*\*정회원,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2001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999). 그러나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여 부엌에 대한 의미변화와 생활양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엌공간 계획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래의 부엌공간의 기능 변화에 대해 많은 예측이 있으나 실제로 주부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부가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 및 의식을 조사하여 미래 주거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엌공간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울산시 거주자의 부엌에 대한 부가적 사용의 실태를 주생활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2) 부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 기능의 수행요구 여부를 파악한다.

3) 부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 기능의 수행요구와 관련변인을 규명한다.

4) 부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 기능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을 알아본다.

## II. 이론적 고찰

### 1. 도시주택의 주생활과 공간의 기능

주거내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취침, 독서 공부, 취미생활 등과 같은 개인생활과 식사, TV 시청, 오락 등과 같은 가족이 함께 하는 공동생활, 그리고 집안청소, 세탁, 설거지와 같은 가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주생활의 형태가 행위주체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윤복자 외, 1990).

주택내에서 각 주거공간의 기능은 그 실에서 행해지는 주생활 행위의 종류와 비중을 의해 결정되는데, 도시주택의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의 행위별 공간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윤복자 외, 1990)에서는 아파트 평면의 영향으로 부엌과 거실의 연결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가족들의 공동생활과 집객행위가 부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족 공동생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배정도, 1989)에서는

거실, 식사실, 부엌은 일상생활의 주된 장소로써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적인 공간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공간의 기능을 조사하였다. 특히, 부엌은 주부의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써 주거내 모든 가사활동의 중심이 되며 가장 많은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엌은 독립된 단일공간이라기 보다는 식당과 거실이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식사준비를 위한 단일기능의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의 일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부엌의 의미와 기능의 변화

부엌은 과거에 난방과 취사가 행해지던 공간으로 외부적인 특성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서구의 주택평면이 도입되면서 난방이 분리되고 내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어 취사뿐만 아니라 식사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윤복자 외, 1990). 또한 부엌이 주거생활공간에서 거실이나 식당기능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부엌의 환경조건은 열악하였으며,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공간으로 여겨졌다(고용화, 1993).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부엌의 새로운 역할이 형성되면서 작업동선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부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며 이러한 공급을 위한 준비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되었다(고용화, 1993; 유충상, 1997).

또한, 부엌의 입식화가 보편화되면서 시스템화된 부엌가구와 자동화된 취사기구로 가사노동의 저감효과를 가져와 가사노동의 수행양식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 부엌의 의미가 단순한 취사공간이 아닌 가족단란 및 접대 등을 포함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부엌공간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부엌공간은 가족 공동공간인 동시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주부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윤복자 외, 1990; 유충상, 1997).

### 3.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한 부엌 공간 계획

미래 부엌 개발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이연숙 외, 1999)에서는 부엌에서 손님접대, 다과, 간단한 식사, 휴식, 독서, 취미생활, 가계부 정리, 가족간의 대화, 음악감상, 세탁, 자녀숙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엌의 생활기능이 단순히 조리, 식사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생활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다목적 복합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이와 동시에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가치관과 생활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생활체험과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려는 지적·문화적 욕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엌내 부족한 수납공간 확보와 부엌공간 확충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부엌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엌 공간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93; 이연숙 외, 1999).

이상과 같이, 미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사와 생활이 일체화되고 주거는 부엌-식사실 중심으로 변화되어 부엌공간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거주자의 요구증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주거개념을 환경과 변화되는 인간의 생활양식에 맞는 미래 주거 및 부엌공간에 대한 개념정립과 과제해결이 필요하다(김진애 외, 1994; 동아일보, 1997 & 1999; 박영순 외, 1998).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울산시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주부들은 30평형 이상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부엌에서 부가적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택규모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시기는 2002년 7월 예비조사를 통한 설문지 보완작업을 거쳐 2002년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상태가 불성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19부를 제외한 321부를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엌 관련 특성, 주생활 행위 실태 및 요구, 부엌에 대한 인식정도, 거주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항목의 척도는 조사대상의 응답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단순한 응답식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구하고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엌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연령은 35-45세 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45세 이상도 39.2%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이 각각 48.1%와 51.9%로 비슷하였으며 미취업주부(62.6%)가 취업주부(37.4%)보다 많았다. 평형별로는 40평형대가 109가구로 36.6%, 30평형대가 28.9%의 순이었으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의 개수는 평형대와 관련이 있어 4개(51.7%)와 3개(34.7%)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기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2년에서 3년 이하가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부엌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루 중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가사작업은 주로 혼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55.1%), 가족 중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녀(28.7%), 남편(17.8%)의 순이었다. 부엌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79.4%)이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배치되어 있고 거실이 분리된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부엌의 부가적사용 실태 및 요구

부엌공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생활 행위와 수행하기를 원하는 요구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표 3 참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생활 행위로는 간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항목	f	%	구분	항목	f	%	
거주 지역	동구	38	11.8	평수 *	30평형대	86	28.9	
	남구	100	31.2		40평형대	109	36.6	
	북구	61	19.0		50평형대	62	20.8	
	중구	87	27.1		60평형대	41	13.8	
	울주군	35	10.9		합계	298	100.0	
	합계	321	100.0					
	연령 *	35세미만	58		18.5	소유 형태 *	자가	297
35-45세미만		133	42.4	전세	17		5.3	
45세이상		123	39.2	월세	1		.3	
합계		314	100.0	기타	3		.9	
				합계	318		100.0	
학력 *	고졸이하	150	48.1	방의 개수 *	2개	4	1.3	
	대졸이상	162	51.9		3개	110	34.7	
	합계	312	100.0		4개	164	51.7	
					기타	39	12.3	
					합계	317	100.0	
직업 분류 *	취업	120	37.4	거주 기간 *	1년 이하	46	14.7	
	미취업	201	62.6		1년-2년	55	17.7	
	합계	321	100.0		2년-3년	60	19.2	
					3년-4년	51	16.3	
소득 *	250만원미만	98	31.0	4년-5년	51	16.3		
	250-300만원	80	25.3	5년이상	49	15.8		
	300만원이상	138	43.7	합계	312	100.0		
	합계	316	100.0					

\* 무응답은 missing 처리 하였음

및 다과(45.6%), 가계부정리(42.5%), 담소(41.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세탁, 손님접대, 이웃과의 친목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식 및 낮잠(0.9%)과 몸단장(0.3%)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부엌공간에서 하고 싶은 주생활 행위 역시 간식 및 다과(62.3%)를 가장 요구하고 있었고, 가계부 정리(60.8%), 담소(46%), 세탁(35.3%), 손님접대 등 사회적 공간으로도 사용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부엌의 사용실태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부엌공간에서 수행하기를 원하는 행위로는 다림질(21.4%), 빨래건조(19.7%), 빨래개기(16.2%) 등과 같은 세탁관련 활동이었다.

또한 부엌에서 하고 싶지 않은 행위로 몸단장(99%), 휴식 및 낮잠(97.9%), 운동(96.6%) 등이었다. 이 결과 역시, 현대 부엌공간 사용실태조사연구와 유사한

표 2. 부엌관련 특성 N = 321

구분	항목	f	%
머무는 시간	1시간미만	15	4.7
	1시간이상-2시간미만	63	19.7
	2시간이상-3시간미만	99	30.9
	3시간이상-4시간미만	74	23.1
	4시간이상-5시간미만	44	13.8
	5시간이상-6시간미만	16	5.0
	6시간이상	9	2.8
함께 일하는 가족*	혼자 일한다	177	55.1
	남편	57	17.8
	자녀	92	28.7
	시부모	15	4.7
	고용인(파출부)이 있다	38	11.8
	부엌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1	.3
부엌의 형태	기타	2	.6
	부엌만 따로 있다	26	8.2
	부엌+식사실, 거실	251	79.4
	부엌+거실, 식사실	4	1.3
	부엌+식사실+거실	30	9.5
	기타	5	1.6

\*복수응답 가능

결과로서 부엌에서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활동들은 특정한 환경적 조건이 필요한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부엌사용실태와 요구를 살펴보면, 현재에는 행하고 있지 않으나 미래에는 하고 싶은 행위, 즉 현재상황과 미래 요구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는 행위로는 가계부정리, 간식 및 다과, 세탁, 다림질, 빨래개기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래 주택내 부엌공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3. 부엌배치 가구 및 기기 실태 및 요구

부엌의 부가적 사용실태 및 요구와 관련하여 주생활 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즉, 가구 및 기기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식탁과 의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엌공간내에 배치하고 있으며(96.3%) 다음으로 라디오, 쓰레기처리기, 전화 등 가전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표 3. 부엌의 부가적 사용 실태 및 요구여부

주생활 행위	현재 수행여부 f (%)		미래수행요구 여부 f (%)	
	부엌에서 한다	부엌에서 하지 않는다	부엌에서 하고싶다	부엌에서 하고싶지 않다
간식, 다과	146 (45.6)	174 (54.4)	190 (62.3)	115 (37.7)
담소	133 (41.6)	187 (58.4)	139 (46.0)	163 (54.0)
가족모임	58 (18.2)	260 (81.8)	66 (22.4)	229 (77.6)
이웃과의 친목	66 (21.0)	249 (79.0)	50 (16.9)	245 (83.1)
손님접대	68 (21.3)	252 (78.8)	72 (24.1)	227 (75.9)
독서	56 (17.7)	260 (82.3)	74 (24.8)	224 (75.2)
운동	10 (3.2)	304 (96.8)	10 (3.4)	282 (96.6)
세탁	71 (22.3)	248 (77.7)	104 (35.3)	191 (64.7)
빨래건조	29 (9.1)	289 (90.9)	58 (19.7)	236 (80.3)
빨래개기	13 (4.1)	306 (95.9)	47 (16.2)	244 (83.8)
다림질	28 (8.8)	289 (91.2)	63 (21.4)	232 (78.6)
바느질 및 재봉	9 (2.9)	305 (97.1)	34 (11.8)	254 (88.2)
몸단장	1 (.3)	318 (99.7)	3 (1.0)	287 (99.0)
자녀 돌보기	36 (11.4)	279 (88.6)	43 (14.9)	246 (85.1)
휴식 및 낮잠	3 (.9)	313 (99.1)	6 (2.1)	282 (97.9)
가계부 정리	135 (42.5)	183 (57.5)	180 (60.8)	116 (39.2)
기타	2 (20.0)	8 (80.0)	2 (20.0)	8 (80.0)

부엌에 배치하고 싶은 가구 및 기기로는 전화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라디오 및 TV에 대한 요구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엌이 가정의 중심공간으로 오락 및 여흥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세탁과 관련된 기기 및 가구(다리미와 다리미대, 세탁기, 빨래건조대)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표 4 참조>. 이는 앞서 말한 주생활 행위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가구 및 기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부엌배치 가구 및 기기 실태 및 요구

구분	항목	f	%
현재 부엌에 배치된 가구 및 기기*	식탁, 의자	309	96.3
	라디오	231	72.0
	쓰레기처리기	138	43.0
	전화	122	38.0
	세탁기	90	28.0
	빨래건조대	26	8.1
	다리미와 다리미대	23	7.2
	TV	23	7.2
	기타	22	6.9
	컴퓨터	12	3.7
	책상	8	2.5
	소파	6	1.9
	재봉틀	5	1.6
	헬스기구	4	1.2
부엌에 배치 하고 싶은 가구 및 기기*	전화	183	57.0
	쓰레기처리기	142	44.2
	식탁, 의자	137	42.7
	라디오	114	35.5
	TV	108	33.6
	다리미와 다리미대	81	25.2
	세탁기	67	20.9
	컴퓨터	48	15.0
	빨래건조대	44	13.7
	소파	26	8.1
	책상	24	7.5
	헬스기구	21	6.5
	재봉틀	17	5.3
	기타	15	4.7

\*복수응답 가능

#### 4. 주생활행위 요구여부와 관련변인과의 교차분석

주생활 행위 요구여부와 관련변인과의 차이를 검증 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평형, 연령, 그리고 학력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평형대별로는 손님접대, 독서, 세탁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손님접대의 경우 60평형대에서는 하고싶지 않다(58.5%)가 다른 평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엌공간의 규모상 여유 즉, 식당과 같은 여유공간의 존재로 인해 부가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평면규모가 큰 경우 손님접대에 대한 요구도가

표 5. 주생활 행위 요구여부와 관련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수행여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60평형대	계	$\chi^2$
평형대별 주생활행위 요구여부	손님접대	하고싶다	10(12.7)	30(28.6)	13(23.6)	17(41.5)	70(25.0)	13.113**
		하고싶지않다	69(87.3)	75(71.4)	42(76.4)	24(58.5)	210(75.0)	
		계	79(100)	105(100)	55(100)	41(100)	280(100)	
	독서	하고싶다	28(35.4)	21(20.6)	12(21.1)	6(15.0)	67(24.1)	8.345*
		하고싶지않다	51(64.6)	81(79.4)	45(78.9)	34(85.0)	211(75.9)	
		계	79(100)	102(100)	57(100)	40(100)	278(100)	
	세탁	하고싶다	28(35.4)	27(26.0)	23(42.6)	23(56.1)	101(36.3)	12.702**
		하고싶지않다	51(64.6)	77(74.0)	31(57.4)	18(43.9)	177(63.7)	
		계	79(100)	104(100)	54(100)	41(100)	278(100)	
		수행여부	35세 미만	35-45세 미만	45세 이상	계	$\chi^2$	
연령별 주생활행위 요구여부	이웃과의 친목	하고싶다	11(21.2)	28(22.6)	11( 9.4)	50(17.1)	8.135*	
		하고싶지않다	41(78.8)	96(77.4)	106(90.6)	243(82.9)		
		계	52(100)	124(100)	117(100)	293(100)		
	손님접대	하고싶다	7(13.0)	37(29.8)	26(22.2)	70(23.7)	6.163*	
		하고싶지않다	47(87.0)	87(70.2)	91(77.8)	225(76.3)		
		계	54(100)	124(100)	117(100)	295(100)		
	자녀돌보기	하고싶다	13(25.0)	20(16.7)	10( 8.7)	43(15.0)	7.932*	
		하고싶지않다	39(75.0)	100(83.3)	105(91.3)	244(85.0)		
		계	52(100)	120(100)	115(100)	287(100)		
		수행여부	고졸이하	대졸이상	계	$\chi^2$		
학력별 주생활행위 요구여부	손님접대	하고싶다	23(16.5)	46(30.1)	69(23.6)	7.376**		
		하고싶지않다	116(83.5)	107(69.9)	223(76.4)			
		계	139(100)	153(100)	292(100)			
	세탁	하고싶다	41(29.9)	61(40.1)	102(35.3)	3.286*		
		하고싶지않다	96(70.1)	91(59.9)	187(64.7)			
		계	137(100)	152(100)	289(100)			
	자녀돌보기	하고싶다	14(10.3)	27(18.4)	41(14.5)	3.717*		
		하고싶지않다	122(89.7)	120(81.6)	242(85.5)			
		계	136(100)	147(100)	283(100)			

\*P<.05 \*\*P<.01

높아지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유미, 1998).

독서의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규모와 관련하여 큰 평형일수록 방의 개수가 늘고 방의 기능분화가 잘 되어있어 독서를 굳이 복합공간인 부엌에서 수행하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세탁의 경우 다른 평형대와 달리 60평형대에서 부엌공간 내에서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56.1%), 이는 공간의 여유로 인해 세탁기 설치가 용이하며 이에 따른 동선절약 및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주생활 행위요구 여부차이

를 검증해 본 결과 이웃과의 친목을 부엌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35-45세 미만(22.6%)이 가장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35세 미만(21.2%)과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다른 연령대와 달리 45세 이상의 응답자의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다(90.6%)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연령이 높은 주부일수록 이웃과의 친목을 부엌이 아닌 다른 공간, 즉 안방이나 거실 등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손님접대의 경우 역시 35-45세 미만이 가장 부엌에서 행하고 싶어했으며 젊은 주부들(35세 미만)이 원하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87%).

자녀돌보기는 35세 미만의 25%가 부엌에서 수행하기를 원하는 반면, 45세 이상의 대다수 즉 91.3%

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교적 자녀의 연령이 적은 35세 미만의 주부의 경우 자녀 돌보기에 대한 필요성을 현재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요구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학력에 따른 주생활 행위 요구여부의 차이를 살펴 보면, 손님접대, 세탁 그리고 자녀돌보기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은 부엌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손님접대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요구여부가 13.6%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녀돌보기는 약 8%의 비교적 근소한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5. 부엌의 부가적 기능 인식정도

부엌에 대한 주부들의 부가적 기능에 대한 인식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 로 조사해 본 결과 부엌을 가계부 정리와 같은 주거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M=4.00)로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엌은 설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엌공간이 화장, 옷갈아입기, 머리손질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M=1.93). 이는 전통적으로 부엌공간은 청결이 중요시 되는 곳으로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보여진다<표 6 참조>. 부엌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여부를 비교해 볼 때 인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용도에 대해 긍정적이나 수행여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인식과 달리 실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가사노동의 간편화를 위한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시간은 크게 감소하지 않

표 6. 부엌의 부가적 기능 인식정도

부엌의 부가적 기능 인식	중요도 f(%)					평균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엌은 식당이나 거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 (14.8)	134 (42.3)	51 (16.1)	65 (20.5)	20 (6.3)	3.39
부엌은 주방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7 (2.2)	28 (8.8)	41 (12.9)	178 (56.2)	63 (19.9)	2.17
부엌의 크기는 지금보다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10.1)	112 (35.4)	92 (29.1)	69 (21.8)	11 (3.5)	3.27
부엌에서 식사준비나 설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7.9)	193 (60.9)	68 (21.5)	27 (8.5)	4 (1.3)	3.66
부엌은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5.7)	154 (49.0)	94 (29.9)	40 (12.7)	8 (2.5)	3.43
부엌은 가족의 단란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29 (9.3)	172 (55.0)	81 (25.9)	29 (9.3)	2 (.6)	3.63
부엌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15 (4.8)	81 (26.0)	91 (29.2)	109 (34.9)	16 (5.1)	2.90
부엌에서 세탁과 관련된 일(세탁, 빨래건조, 빨래개기, 다림질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 (7.3)	129 (41.0)	69 (21.9)	79 (25.1)	15 (4.8)	3.21
부엌에서 화장, 옷갈아입기, 머리손질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1.0)	12 (3.8)	43 (13.7)	158 (50.2)	99 (31.4)	1.93
부엌은 자녀돌보기(신체적 돌보기, 숙제봐주기 등)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6 (1.9)	51 (16.2)	106 (33.8)	118 (37.6)	33 (10.5)	2.61
부엌은 가계부 정리와 같은 주거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11 (3.5)	197 (62.5)	84 (26.7)	19 (6.0)	4 (1.3)	4.00
부엌을 식사준비나 설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하고 싶다.	29 (9.2)	108 (34.2)	108 (34.2)	60 (19.0)	11 (3.5)	3.27

있으며 부엌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보다 주부가 혼자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는 기술·경제적인 변화가 주부의 가사노동에는 아직까지 크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부엌공간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현재 많이 행해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요구하는 것으로는 가계부정리와 담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및 기기, 즉 책상(2.5%)이나 컴퓨터(3.7%), 편안한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세탁 및 관련행위(빨래건조, 빨래기, 다리미질)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실제 이를 보조하는 세탁기, 빨래건조대, 다리미와 다리미대 등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부엌공간이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사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및 기기 등이 부엌공간 내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가계부정리와 담소를 위한 식탁 외의 제2의 작업공간 또는 작업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디자인 방법으로 부엌유형 중 아일랜드형과 반도형이나, 접이식 또는 인출식 카운터를 설치하여 가계부정리를 위한 책상기능과 다리미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공간의 규모는 부엌의 주생활행위의 요구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작은 평형대의 부엌에 부가적인 기능이 수용될 수 있는 맞춤형 공간계획방법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엌공간을 식사준비나 설거지 외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공간을 개조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공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주생활 행위에 대한 경험부족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부엌공간의 활용과 가사노동의 능률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엌공간의 부가적 기능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가족생활주기와 주생활양식에 따른 요구와 이에 대한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평면 및 가구배치 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요구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울산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조사하였는데 앞으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주부들 더 나아가서 주부외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고용화(1993), 우리나라 주택주방 변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성희 외(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3. 김진애 외 6인(1994), 21세기에 이룬 집에 살고싶다: 서울포럼.
4. 대한주택공사(1993), 쾌적한 미래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5. 동아일보(1997), 「21세기 한국의 아파트 모습은?」. 1997년 1월 21일자.
6. 동아일보(1999), 「커지는 부엌, 작아지는 거실」. 1999년 8월 1일자.
7. 류호찬(1998), 신세대 부부들 위한 부엌가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박영순·김미경(1998), 19세기 이후 미래주거 계획에서 나타난 주요개념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2권. pp.67-75.
9. 배정도(1989), 가족공동생활공간을 위한 아파트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유충상(1997), 현대주택가구의 유니트화 계획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윤복자(2002a), 부엌의 디자인과 리모델링. 서울: 신광출판사.
12. 윤복자(2002b. 10), 월간 인테리어. Kitchen.
13. 윤복자 외(1990), 한국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 -부엌변천-. 대한가정학회지, 28(3), pp.67-86.
14. 윤정숙·김수경(1999),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주거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7(7). pp.143-153.
15. 이연숙·양지안(1999), 미래부엌개발을 위한 소비자 요구 조사연구. 실내디자인논문집 1호, pp.63-66.
16. 이유미(1998), 아파트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주택 내부공간 선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조안준 역(1995), 식당과 부엌. 산업도서출판
18. Wentling, J. W.(1995), Housing by lifestyle: The component method of residential design. McGraw-Hill, Inc.
19. www.isdesignet.com/Magazine/Oct'96 The sociable kitchen.